

차세대 연구 거점으로 자리잡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선정



▶우리 대학 전경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22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신규제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우수 연구자·연구소 육성 및 연구 활동 지원이다.

인문사회분야 학술 및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차세대 연구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인문사회 연구소와 우수 연구자 등에 최대 10년간 742억 원을 지원한다.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학문·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1963년부터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

순수학문형 –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교육 및 융합연구센터 ▲동국대 역사 교과서연구소 ▲동서대 동아시아연구원 중 국연구센터 외 3.

문제해결형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진로직업교육연구센터 ▲성균관대 교육과 미래연구소 ▲연세대 (미래캠퍼스) 빈곤 문제국제개발연구원 외 4.

미래공유형 – ▲가천대 휴먼보건과학융합 연구소 ▲대구대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 중심 대학들이 선정된 가운데, 우리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가 순수학문형 연구제로 선정됐다.

부산에 위치한 대학 중 유일하다. 앞으로 6년간 최대 1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동아시아연구원 중국연구센터는 이 연구를 통해 아시아 내 협오와 갈등 문화를 해소하고 동아시아의 문화다양성 풍토 정착을 동아시아 도시의 인문협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교育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문·사회·문화·예술 등을 혁신 과학기술과 접목해 미래사회에 대한 혁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거점을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수학자 지원사업 10개 과제, 사회과학 연구사업 15개 등 인문사회연구자를 위한 연구제제도를 신규 선정해 차세대 연구 인력 육성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신문규 교수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미래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학술·역량과 과학기술 간의 연계 융합연구가 필요하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초 학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뭉쳤다

부경대와 공유협력 협약 체결



▶협약식

우리 대학이 부경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미래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우리 대학의 장제국 총장이 부경대에 방문해, 부경대 장영수 총장과 함께 부경대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첨단분야 공동학과 신설 및 운영을 위한 공유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학의 특성화 역량을 결집, 디지털금융 등 첨단분야 학과를 신설해 계획이다.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해 국제 금융혁신도시인 부산의 연관 산업 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한국거래소와 디지털금융과 파생상품 교육 및 연구 분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장제국 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경대와 동서대의 특화 분야를 서로 잘 활용한 교육과정 및 상호학점 인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미래 첨단 인재 양성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화답했다.

우리 대학은 이미 인재 배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두 대학이 뭉쳐 더 많은 인재를 배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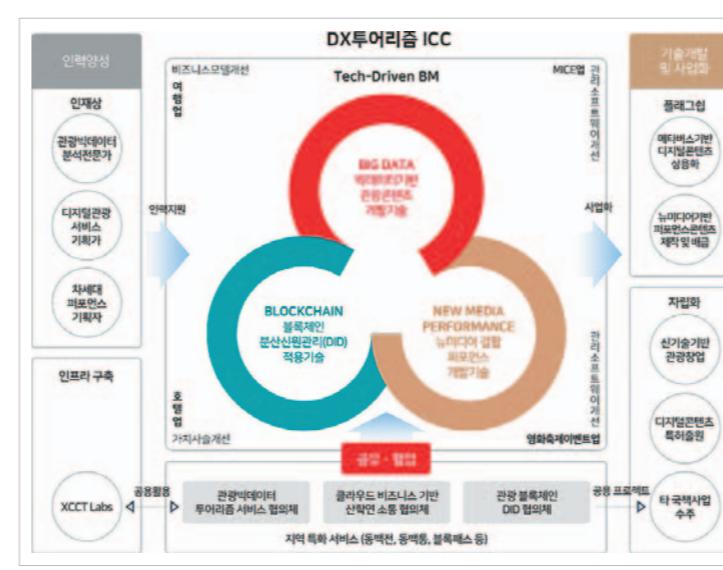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DX투어리즘 ICC 신산업창출협의체 출범!

관광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다



▶DX투어리즘 ICC 신산업창출협의체 출범식



▶DX투어리즘 ICC 구성도

우리 대학의 LINC 3.0 사업단이 기업협업센터(ICC : Industry Cooperation Center)의 DX 투어리즘 ICC 신산업창출협의체 출범식을 우리 대학 센텀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우리 대학 LINC 3.0 사업단의 기업협업센터는 ▲XR(eXtended Reality)콘텐츠 ▲CV(Creative Visualization)디자인 ▲DX(Digital Transformation)투어리즘 3개로 구성돼 있다. 기업지원실(실장 김형숙)을 중심으로 '4Co 기업지원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산학연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4Co(▲Connection ▲Collaboration ▲Competitiveness ▲Co-prosperity) 기업 지원' 이란 산학연 간의 쌍방향 지원 생태계 확립과 체계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스템이다. 목적에 맞는 다양

한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별 최적의 프로그램 매칭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DX투어리즘 ICC'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기반 관광·문화 콘텐츠에 특화된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DX 투어리즘 ICC 특성을 반영한 산·학·공동 기술 개발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본 출범식은 관광 및 IT 관련 기업 및 기관, 관련학과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신산업창출협의체 구성, 기업 소개에 이어 관광 데이터 관련 주제발표, 관광 분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DX투어리즘 ICC 신산업창출협의체는 참여기업 확대 및 메타기술 기반 산·학·연 협력,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기업들은 신산업창출협의체를 통해 공동 관심 분야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협업 활동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LINC 3.0 사업단을 통해 ▲산학연 연계 생태계 조성 및 참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관광 빅데이터 및 퍼포먼스 마케팅 분석 기술 개발 ▲관광기업 DX 전문 인력 확보 ▲메타버스 기술 기반 관광 콘텐츠 상용화 ▲관광 관련 산업 및 분야 전문가 멘토링 지원 ▲지식·기술 공유를 통한 인프라 확장 및 주제 확보 ▲기기 글로벌 진출 확대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모델 진단 및 컨설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성은희 DX콘텐츠 ICC 센터장은 "본 센터는 관광콘텐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인재 양성과 DX투어리즘 기반 관광 산업 서비스 기술혁신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신산업창출협의체와 함께 지역, 산업체, 학교, 연구소 간의 지속적인 공동화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및 기업의 혁신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DX투어리즘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협력 선도모델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번 신산업창출협의체를 기반으로 산학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 등 지역 내 기업 비즈니스 모델 개선에 기여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잘레니에네 총장에 명예 박사 학위 수여

미래의 지도자를 꾸준히 육성한 공로와 업적을 기리며



▶학위식

우리 대학의 대학원이 소향콘서트홀에서 리투아니아 국립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Mykolas Romeris University)의 임가 잘레니에네(Inga Zaleniene) 총장에게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임가 잘레니에네 총장이 리투아니아와 유럽연합의 교류 발전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이들의 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해 혁신을 창출과 함께 지역, 산업체, 학교, 연구소 간의 지속적인 공동화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 및 기업의 혁신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기현 LINC 3.0 사업단장은 "DX투어리즘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협력 선도모델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번 신산업창출협의체를 기반으로 산학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 등 지역 내 기업 비즈니스 모델 개선에 기여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은 글로벌 대학의 실현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0년간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와 학부 및 대학원의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가 잘레니에네 총장은 유로피언 여성총장 협회 위원이며, 유네스코 협력기구인 국제대학협회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제국 총장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 오신 임가 잘레니에네 총장님께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의 수여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서대학교와의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 또한 더 나아가 한국과 리투아니아간의 공동교육 협력과 발전에 선도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교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BIC FINALIST에 오르다!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그 이후



▶수상작 일러스트

2022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BIC Festival 2022)에서 우리 대학 게임학과 작품 중 5개 작품이 선정됐고, 그중 3개 작품이 FINALIST에 올랐다. 전 세계 15개국 322 개 출품작 중 투기 부문 37개의 전시작을 먼저 선정하고, 그중 Art, Narrative, Rising Start의 세 개 분야에서 각각 4개 후보, 총 12개의 작품만 수상하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상이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대표 게임 축제이자 글로벌 인디 게임 축제로 자리 잡은 세계 15개국이 참가하고, 에픽게임즈, 유니티, NC소프트 등의 글로벌 회사들이 스크린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게임 공모전이다. 현재까지 48개국에서 2,172개의 작품을 접수했고, 총 207,700명이 행사에 방문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BIC에서 주관했고, BIPA(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INDIERA(인디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서 주최했다.

또 페스티벌 시작 전부터 '나의 인디게임 취향은?'과 같은 MBTI 형식의 테스트(GBTI(Game MBTI)를 통해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SNS에서 홍보를 진행했다.

올프 팀(이상업, 최지훈, 김근홍, 오민수, 차장웅, 나희, 박정원 학생)의 <이솝> 외전 : 늑대 이야기는 이솝우화의 재해석



으로, 늑대의 시점으로 본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했다. 개주얼한 퍼즐과 전투가 들어간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해당 작품은 EXCELLENCE IN NARRATIVE FINALIST에 진출했다.

정설모를 사랑하는 모임 팀(김체원, 노성엽, 레반탄투엔, 임소정, 서지혜, 도임수, 전인석 학생)의 <종이마을>은 건설대작전

: 수상한 주민들>은 폭풍으로 모든 건물들이

주인공 건우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신비로운 문방구 세상으로 가게 되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과정을 게임이다.

또 다른 팀은 EXCELLENCE IN ART FINALIST에 진출했다.

FINALIST에 오르진 못했으나 선정된 두 작품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울니버스 팀(정유경, 정우영, 신성호, 이준빈, 김민준, 이현지, 김유진, 엄지원,

황준영 학생)<신나 문방구>는 PC 플랫폼 기반의 액션 어드벤처 퍼즐 게임이다.

주인공 건우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신비로운 문방구 세상으로 가게 되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는 과정을 게임이다.

해당 작품은 RISING STAR FINALIST에 진출했다.

Piuda 팀(김지민, 이동하, 김진우, 유지현, 남권희, 이후정, 강지윤, 문예진, 최

린지, 안보영 학생)의 <Primrose>는 연필, 붓과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 퍼즐을 푸는 게임이다. 화기였던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린 소녀 '프림로즈'가 꿈같은 하루를 보내며 자신을 애지중지하는 아버지의 마음, 또 태어나기까지 받았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구성된다.

선정된 작품들은 게임학과의 졸업 작품들로, LINC 3.0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 클래스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작업했다. 올해 BIC Festival 2022에는 총 6개 작품을 출품했고, 한 작품을 제외하고 모든 작품이 선정됐다. 이는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이뤄지 못한 놀라운 성과다.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선정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으며, 9월 한 달 동안 BIC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시 전시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소개됐다.

해당 게임들과 다른 선정된 작품들은 현재 BIC 홈페이지 전시작에서 간단한 회원가입과 로그인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 게임이나 우리 학생들의 소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김규리 기자
0rlarbfl@gmail.com

건강한 지구를 위한 아이디어

자원 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우리 대학 수상자

우리 대학 큐컬리지(Q College) 2기 학생들이 '제12회 부산광역시 자원 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김종우, 유현아, 이정은 학생), 은상(배소연, 임도효, 김시창 학생)을 수상했다.

이 공모전은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주최했고, 환경수호운동연합회에서 주관한 행사다. 자원 순환 아이디어 발굴, 자원 순환 홍보, 창작품 등의 부문으로 진행됐다. 평소 재활용을 해온 개인의 노하우 및 사례,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만든 창작품 총 세 가지 주제로 개최됐다.

여러 연구원·연구회에서 비밀이나 플라스틱 쓰레기 등을 이용해 친환경 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 힘쓰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전 아이디어 또한 우리가 미주한 환경 문제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을 수상한 김종우, 유현아, 이정은 팀은 <염사이>를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용품'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부산의 마스코트인 부기(부기) 활용한 아이디어로,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부기)를 가지고 오면 자체 제작한 업사이클(부기) 활용해 주는 방식이다. 이 팀은 부산광역시장과 함께 상금 300만 원을 받게 됐다.

은상을 수상한 배소연, 임도효, 김시창 팀은 일상생활 중 흔히 사용하고,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우리가 버린 해양 쓰레기,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이 팀은 연합회장상과 함께 상금 50만 원을 받게 됐다.

우리 대학 큐컬리지 학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사회적 소명을 업무에 두고 개인의 능력을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며 학생들의 수상을 축하하는 말씀을 전했다.

우리 대학 큐컬리지는 '부부 양성 도전 스쿨'을 목표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선발해 창업, 창작,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해 부산, 아시아, 미국에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학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미래형 혁신대학이다. 자신만의 부캐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언제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김규리 기자
0rlarbfl@gmail.com

최우수상을 향해 'Walking'

관광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수상자



▶수상자 전원 사진

▶사진 출처 - 파이낸셜 뉴스



▶실습 중인 모습

우리 대학 바이오웰스융합대학 화장품·신소재학과는 지난 7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윗솔루션 대표를 초빙해 조향 특강을 진행했다.

스윗솔루션은 향기 전문 화장품 제조업체다. 고유의 진단 테스트와 조향 알고리즘을 통해 1대 1 맞춤 솔루션으로 나만의 향수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향과 관련된 제품 개발을 하지만, 그 외에도 스키부터 바디, 신케어, 크림 등의 제품 개발에도 도움을 준다.

또 와이즈 펀딩을 통해 제조부터 성공까지 도움을 주며, <스페이스 페어링>, <당신만을 위한 프리미엄 니치 향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스페이스 페어링은 면적이 있는 공간을 약 120가지의 향기로 채워 주는 공간 프로젝트이며, 프리미엄 니치 향수는 조향 알고리즘 센트rale인 펀더멘털을 통해 맞춤 향기를 찾는 프로젝트다.

이날 스윗솔루션 대표는 천재적인 향수의 주인공이 향수 제조사의 후계자로 들어가며 시작하는 영화 <향수>에 대해 얘기하

화 전략 및 노하우 공유에 대한 멘토링, 마지막 3회차는 공모전 발표 심사 순서로 진행됐다.

Walking 팀은 <꽃길 스튜디오> : 꿀목수관을 꿀피우다>라는 관광창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꿀목길 투어와 한복 스냅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내세웠으며, 스냅 사진 시장의 주 고객인 2030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선한 소재, 그리고 꿀목수관 활성화에 의의를 품은 꿀목길 투어를 결합한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관광분야 창업에 대한 도전 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됐다.

7월에 시작해 5주 동안 진행된 2022 부산 대학생 관광창업 아카데미를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아카데미를 통해 기본적인 창업 지식부터 창업계획서 작성 방법, 영업 및 판매 기법, 투자 유치 방법, 고객 관리 등에 대해 배우고, 강연자 초빙 특강 등을 들었다.

3일에 걸쳐 3회차로 진행됐으며, 총 8개 팀 37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1회차는 사업 계획서 작성과 구체화 방법, 2회차는 사업

복 등을 대여해 입고 돌아다니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러한 관광 상품은 1020대 여성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경주에 가면 다양한 시대별 복장을 입고 관광을 즐기는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Walking 팀이 제안한 아이디어 역시 실현된다면 2030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아 사랑받는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기대해 봄을 좋을 것 같다.

최우수상은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관광분야 창업에 대한 도전 의식 고취를 위해 개최됐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은 'East Start UP!' 상상이 현실이 되는 창업의 요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초기창업 펀딩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사업,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 창업과 도전정신을 갖춘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우리 대학 창업지원단은 'East Start UP!' 상상이 현실이 되는 창업의 요람'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의 창업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초기창업 펀딩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 대학사업,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 창업과 도전정신을 갖춘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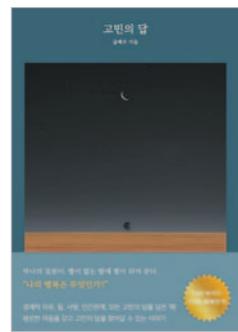
김규리 기자
0rlarbfl@gmail.com

▶수상작 일러스트

▶수상작 일러스트



자신의 삶에 대한 답은 나에게 있다



• 책 제목 : 고민의 답
• 책 저자 : 글배우
• 출판사 : 강한별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간다. 10대 때에는 10대만이 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20대는 20대의 고민, 30대는 30대의 고민을 앓고 살아간다.

글배우 작가는 출간 도서 누적 판매 70만 부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100회 이상 강연으로 50만 독자와 글로 소통하는 인플루언서이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 하는 고민의 답을 글로 풀어내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행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사색하고 사유하는 것을 좋아하는 글배우 작가의 정리된 생각은 많은 사람의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나 또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 중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해야 할 것들이 몰아치는 순간, 인간관계, 어딘가 갇혀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등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것들을 벗어나고자 할 때 에세이를 주로 즐겨 읽는 나에게 다가왔다. 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부여해 준다.

고민의 종류는 단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종류를 낳고 있으며 이는 우리와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처럼 느껴진다. 고민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저어진 이 책은 다양한 고민과 그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담겨있다. 고민의 굴레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이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내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순간 자존감을 높이기 어렵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기득하게 된다. 책에서는 수많은 고민을 안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방안들을 마련해 주고 있다.

1부 열정에서는 '열정은 또 다른 열정을 만든다'라는 소제목을 지니고 있다. 처음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내가 가졌던 열정을 기억해 보자. 처음 시도할 때는 멋있게 해내려는 의지를 갖추며 도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는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그렇게 느껴온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다. 지치는 순간 끌없는 부정적인 굴레로 들어가는 이들을 볼 수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하지만 책 속에 나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살다 보면 내 의지대로 안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이는 행복해지기 위해 겪는 고통일 뿐이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데 그 길을 걸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자.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노력을 한스푼 더 끌어야 한다. 힘들고 지치지만, 이는 모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한 스펜이다.

2부 평온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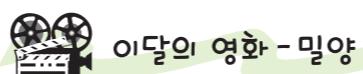
김선희 수습기자

강렬한 힘은 평온'이라는 소제목으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법, 고민을 벗어나기 위한 마음 가짐 및 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나는 자존감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내가 가장 부족한 건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나는 자존감과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과연 수많은 일에 대해 도전하고 열광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고민은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좀 더 잘 알고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먼저 지녀야 한다.

마지막 3부 사랑에서는 마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해, 사랑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 및 생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많은 고민을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 대한 답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인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등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간관계만큼은 피곤하고 힘든 고민이 있으면 심은 동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으면 하는 고민이다. 나에게 맞는 사람은 있다면 동시에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있다는 것을 인지해 두어야 한다. 너무 인간관계에 지치지 않았으면 한다.

삶을 살아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휘몰아치는 순간 다가온 이라는 책을 읽는 순간 공감과 해결책을 동시에 전달해 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특별한 고민이 아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적어 놓은 책이기에 많은 사람이 읽어봤으면 한다.

밀양은 타인의 상처에 마주하는 우리



우리는 타인에게 어떻게 공감하는가



• 영화 제목 : 밀양
• 영화 감독 : 이창동

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는 밀양으로 이사 가는 신애를 보여주며 시작한다. 밀양에서 신애는 작은 파이어 학원을 개업해 홀로 아들 준이를 기른다. 준이 아버지인 신애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생전 남편이 말하던 그의 고향 밀양으로 이사온 것이다. 매월 시간이 흐른 뒤 홀로 아이를 기르는 신애가 걱정된 그녀의 남동생은 밀양 집에 방문해 신애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신애는 자신을 놔두고 사고를 당해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지만, 남동생은 그런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힘든 삶에도 신애는 학원을 운영하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아들 준이를 학원에도 보내며 생활을 이어간다. 주민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 뒤 집으로 돌아가려는 와중에 신애는 전화 한 통을 받는다. 내내 집으로 향해 준이를 찾아보았지만 준이는 사라지고 유괴됐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는다. 이후 자신을 잘 도와주던 종친의 일터로 달려가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이윽고 등을 돌려 홀자 집으로 돌아간다. 시간이 지난 뒤 결국 아들 준이는 죽은 채 발견되고 유괴범을 잡게 된다.

아들 준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신애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상실한 표정을 보이고 이에 신애의 할머니는 너는 슬프지도 않느냐며 분노한다. 그러나 그녀는 사실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녀는 종교를 믿으며 슬픔을 표현하고 털어놓아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지만, 근본적인 슬픔과 유괴범을 향한 분노는 없앨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유괴범을 용서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 한다.

유괴범을 용서해 주기 위해 교도소로 찾아갔지만, 그녀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

게 된다. 바로 그녀가 종교의 믿음으로 유괴범을 용서했듯이 유괴범 자신도 이미 종교의 신원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그녀는 교도소를 나서며 충격에 그만 쓰러진다. 교도소에 동행한 종친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교도소 면회를 잘하고 나와 쓰려졌다" 사건의 충격으로 그녀는 더욱 깊은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정신병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결국 신애는 자해를 하게 되고 정신 병원에 가게 된다.

시간이 흘러 정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종친은 머리가 자르고 싶다는 신애의 말에 미용원을 데리다준다. 그러나 그 미용원은 유괴범의 팔이 일하는 곳이었고 이에 신애는 뛰쳐나와 집으로 향해 직접 머리를 자르며 영화는 끝이 난다.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물음으로 전진된다. 바로 우리는 타인에게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는 신애 주변의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 또 신애를 좋아하는 종친까지도 그녀를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더없이 영화를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은 신애를 바라보는 관객인 나와 우리를 역시도 신애에게 완벽하게 공감하기 어렵고 때때로 신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감독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영화를 연출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정말 타인에게 제한적인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제한적인 공감 능력은 정신병이 걸린 신애의 이야기를 누나의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 이야기로, 극 중 이야기로 볼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때때로 일련의 사건 앞에 우리를 외롭고 고독한 존재로 만든다.

도 열 수습기자

가을을 담은 하늘

역세평원과 도시어촌



▶승학산 역세평원



▶도심어촌체험휴양마을

▶사진출처 -비짓부산

▷사진출처 -비짓부산

가을은 창문을 열어야 느낄 수 있다. 무작정 밖으로 나가야 느낄 수 있다. 가을은 여행을 떠나야 가을을 느낄 수 있다. 흔히 봄은 활기와 꽃가루와 달리 여름은 태풍과 더위로 싸운다고 하지만, 가을은 더위지 않는다. 내려놓을 뿐 자기 비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을 좋아하는 것 같다.

가을이 먼저 온 곳은 하늘이다. 풀잎이 가을을 만나면 빛을 바꾸고, 나무가 가을을 만나면 이파리를 벋는다. 자신의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가을을 온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여행지 한 곳을 추천하고 싶다.

가을이 되면 하얀 역세평원이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 승학산은 가을을 음운으로 느낄 수 있다. 승학산은 오르면서 색이 변한 풀잎들과 이파리가 하나씩 떨어져 가는 나무들을 보면서 가을을 느껴보는 것이 좋다.

능선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승학산의 초원에는 헛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하늘거리는 역세가 기특하다. 가을의 정취를 한층 더해주는 승학산의 역세를 찾다 보면 즐거운 도보 여행이 될 것이다.

승학산의 초입에 들어서면 넓은 임도와 울창한 숲길이 먼저 가을을 즐기는 여행자들을 반긴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들이켜며 문득 올려다본 하늘은 계절을 다해 듬

성듬성 갈라진 나뭇잎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어지는 등산로는 평坦한 오솔길과 평나 가파른 나무계단, 거친 돌밭과 편안한 흙길을 번갈아 내어주며 정상을 향해 나아간다. 하나님을 떠나피여 역세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양옆으로 오솔길을 감싸는 역세들이 모습을 나타낸다.

올라온 산길과는 전혀 다른 평평한 들판을 배경 삼아 넓게 드리워진 역세락 사리를 가로지른다. 바람에 흔들리는 역세의 소리는 가을이란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가기 다른 빛깔로 빛나는 역세밭 풍경은 모든 곳이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된다. 가을의 푸른 하늘과 가을햇살을 고스란히 받아 따스하게 빛나는 역세밭의 조화는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멋진 풍경이다.

역세평원을 지나면 하늘을 찌를 듯 위로 쭉 뻗어있는 삼나무 숲길을 따라가면 역세밭에서 드문드문 보이던 녹색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숲길은 항상 우리에게 청량함을 준다. 페 길속이 들어오는 나무 내음은 우리를 떠나서 올봄 곳곳에 스며든다.

다음 가을 여행 코스는 등산어촌체험휴양마을이다. 부산 영도구 등산동 해양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등산어촌체험휴양마을은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도

시어촌이다. 아담한 포구에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줄지어 쉬고 있는 모습은 어느 어촌마을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초고층 아파트가 어촌마을에 우뚝 솟은 모습은 동심어촌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도시어촌의 매력이다.

동산어촌체험휴양마을은 2015년 어촌휴양마을로 지정된 이후 곰피천연비누만들기, 맨손물고기잡기, 선상낚시 등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태종대의 기암괴석과 주변 바다 풍경을 감상하며 낚시를 할 수 있는 유어장과 낚시 체험은 초보자들도 순하게 낚시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인기다. 비용은 1인당 2만 원으로 초등학생이나 유아도 체험이 가능하며 낚싯대도 5천 원에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 오전 5시부터 점차마다 유어장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다.

매표소 앞 포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자 포구에선 볼 수 없던 시원한 바다 풍경이 펼쳐진다.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신나게 달리던 배는 불과 몇 분 만에 우리를 떠나서 올봄 곳곳에 스며든다.

제법 넓은 공간에 회장실이며 식당, 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잘 설치돼 있고 간단한 취수도 가능하다. 낚시터 가장자리 빈 곳에 터를 잡았으면 이제 신나게 낚

축제·공연 소식



세상을 품은 우리 노래

• 기간 : 2022. 10. 04. (화)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부산CBS
• 입장료 : 주최사측 문의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 기간 : 2022. 10. 04. (화)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전석 10,000원



소호 오페라 코리아 "피가로의 결혼"

• 기간 : 2022. 10. 05. (수)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웹홀
• 주최 : 소호 오페라 코리아
• 입장료 : 전석 10,000원



스위스 시계장인

• 기간 : 2022. 10. 07.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 20,000원/S석 15,000원/A석 10,000원



국악관현악 시즌 III

• 기간 : 2022. 10. 07.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 (1층) 10,000원/S석 (2층) 5,000원



춤, 본색

• 기간 : 2022. 10. 20. (목)~2022. 10. 21.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주최사측 문의



4인 4색 합창축제

• 기간 : 2022. 10. 28. (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10,000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커피지식

커피의 역사와 변화 과정



▶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모습



▶ 라떼가 만들어지는 과정



▶ 사진출처 - pixabay

부쩍 아침부터 주워지기 시작하더니 웃장에 넣어둔 걸들을 꺼내 입게 된다. 이런 날씨에 마침 떠오르는 것은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음료가 아닐까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음료가 생각나는가?

다들 커피를 떠오르지 않을까 한다. 제일 대표적이며 대중적이지만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 커피, 종류 또한 다양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커피의 역사와 종류를 소개하며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며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알려 주고자 한다.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다

전 세계 사람들이 물과 차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것이 커피다. 그만큼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커피는 언제 어디서부터 마시기 시작했을까?

커피나무는 중앙아프리카의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자생하는 식물인데 차에 비해 비

교적 늦은 시기에 발견됐다. 차 같은 경우는 기원전부터 기록이 있었고 기후변화에도 크게 작용을 받지 않아 중위도에서 살짝만 남쪽으로 내려가도 자체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반면, 커피는 적도 부근에 위치한 더운 지역에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비교적 깊다로운 산악이기도 하고 전과 또한 15세기~16세기가 돼서야 시작됐기 때문이다.

커피는 처음에 에티오피아 고원 지대의 산악 부족들 사이에서 커피콩을 빻고 뿐아서 빵에 넣거나 같아서 박죽으로 만들어 먹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록상 처음 커피가 소개된 것은 에티오피아의 흥해 건너편에 위치한 예멘 지역에 커피나무가 들어오면서 되면서 줄을 방지 목적으로 커피나무 열매를 우려 만드는 음료가 도입되면서부터다.

에티오피아 지역은 위치 상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예멘 지역과 교류가 활발했기에 당시 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서 교류하는 이슬람 상

인들에 의해 커피나무가 들어왔을 것이라 추정된다.

특히 이슬람 유목민들은 기후 특성상 무더운 낮보다 시원한 밤에 이동했기 때문에 줄음을 아겨내기 위해서는 커피만한 게 없었다. 그렇게 커피가 다른 지방까지 전파되자 술을 길지하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술 대신 커피를 마실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다.

자연스럽게 16세기 무렵에는 시리아의 다미스쿠스를 시작으로 메카, 카이로, 이스탄불 순으로 커피를 마시며 세상사를 논하는 커피하우스가 생기기 시작했고, 오스만 제국이 예멘을 정복할 때쯤 생산망과 무역망이 안정돼 모스크 근처에는 어디든 커피하우스가 생겨 이슬람 세계에서는 커피하우스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베네치아 상인들을 통해 처음 커피가 소개됐고 17세기에는 오스만 제국과의 무역이나 전쟁을 통해 커피가 알려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다.

특히 유럽의 대도시에 커피하우스들이 생겨나면서 신흥 지식인이나 부르주아 계층들이 모여 토론하는 장소가 됐고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 같은 급격한 사회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커피의 어원과 추출방법의 변화

에티오피아의 옛말로 음료를 '카와'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예멘에서는 커피나무에서 가져온 열매를 우려 만든 음료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그러다가 오스만 제국의 주요 언어인 페르시아어로 옮겨지면서 '카흐베'라 발음되기 시작했고 커피를 통해 생겨난 커피하우스를 '카흐베네'라 불렀다. 이것이 또 베네치아 상인들을 통해 '카페'라는 이름으로 전파되기 시작해 유럽 전역에서 각국의 발음대로 '카피', '코피' 등으로 불리게 됐다.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진하게 커피를 마실 방법을 고민했다. 그래서 증기를 이용해 고속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기계를 발명했고 사람 손으로 레버

처음에 카와는 열매를 통째로 구워서 우려 먹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카흐베로 전해지면서 열매의 과육은 제거하고 씨앗만 볶은 뒤 가루로 만드는 방식으로 변형했지만 기존의 카와처럼 그대로 물에 넣고 직화로 끓여 진하게 먹었다. 오늘날 터키 커피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방법이 불과 200년 전까지 하더라도 커피를 마시는 표준적 방법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기술이 발전하고 커피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했는데 19세기 초에 프랑스에서는 비긴 포트와 프렌치 프레스를 발명했고 20세기 초에는 독일에서는 거울종이를 펼터로 쓰는 드리퍼를 발명해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세기 중반에 사이onden의 방식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진공 휴식 커피를 발명했다.

반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빠르고 진하게 커피를 마실 방법을 고민했다.

그래서 증기를 이용해 고속으로 커피를 추출하는 기계를 발명했고 사람 손으로 레버

를 놀려 뽑아내는 수동식 피스톤 머신에서 자동식 피스톤 머신까지 발전했다. 이렇게 되어 커피는 진한 커피를 '에스프레소'라고 부르게 됐고 오늘날 모든 커피의 대명사가 됐다.

현대의 커피

현대는 인스턴트커피, 캔 커피, 캡슐 커피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커피를 통해 많은 종류의 음료가 만들어진다. 또한 커피 특유의 쓴 맛과 카페인 성분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디카페인 커피와 다양한 블렌딩을 통한 음료 개발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이 되고 있다. 오늘도 커피를 마시는 당신, 이번 글을 통해 커피의 역사와 변화 과정을 알고 마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자료출처 : 지식해적단 - 커피의 역사
마크 펜더그리스트 - 마olu과 잔혹의 커피사
박상욱 수습기자

할로윈파티가 열리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달콤·살벌 에버랜드 할로윈에 초대합니다



▶ 블러드시티의 야경



▶ 위키드 퍼레이드의 모습



▶ 사진 출처 - 에버랜드 홈페이지

▶ 에버랜드 가이드맵

▶ 사진 출처 - 에버랜드 홈페이지

좀비를 피해 탈출하라! '블러드시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에버랜드에서는 할로윈을 맞아 9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80일간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축제와 최신 어트랙션 등의 디채로운 시설과 서비스가 있는 에버랜드의 올해 할로윈 축제에서는 블러드시티, 공연, 놀이기구, 가든 등의 즐길 거리가 즐비하다.

좀비를 피해 탈출하라! '블러드시티'

시즌6으로 새로 단장한 블러드시티가 9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장한다. 화려한 네온 속 탈선한 기차와 블러는 건물들, 그리고 초대형 달이 뜨는 오묘하고 오싹한 블러드시티의 밤. 좀비들과 다르X의 음모로 가득한 블러드시티를 탈출하기 위해 사람들은 좀비로 위장한다. 당신은 좀비로 가득한 블러드시티를 탈출할 유일한 급행열차 '티 이스프레스 199'를 타고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오징어게임>으로 제2회 미술감독 조합상(Art Directors Guild Award)을 받은

체경선 미술감독과 콜라보한 블러드시티6은 실제 열차와 고가철도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소리, 네온사인 등의 조명효과를 이용해 더욱 실감 나는 기차역 풍경을 조성했다. 체경선 감독은 영화적인 세트와 영상 미디어를 결합한 구조물로 디스토피아적인 근 미래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메인 랜드마크인 알파인게이트에서는 기자가 탈선된 역사를 표현했다. 미디어아트(건물 외벽에 LED 화면을 비춰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를 이용해 블러드시티를 소개하는 영상과, 기차를 탈출할 수 있는 티켓의 정보를 건물 외관에 디자인해 보여준다.

체경선 미술감독은 코로나로 축제를 즐기지 못한 분들에게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과 영화 세트처럼 연출된 공간에서 좀비도 데보고, 열차를 타고 탈출에 성공해 즐겁고 신선했던 할로윈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티 이스프레스는 통상 에버랜드의 마스코트이자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로 시속 104km, 낙하距 77도의 에버랜드 대표 놀이기구라고 할 수 있다. 티 이스프레스를 이용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공간은 '화이트 존'이다. 포토존과 분장실이 있는 공간으로, 의상과 족비 분장을 색다르게 디자인하여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

화이트 존은 별도 경계가 필요한 체험형 놀이 공간이다. 분장 가격은 퍼펙트 키즈 족비(1만 원), 큐티 족비(1만 원), 파이터 족비(2만 원), 워리어 족비(3만 원), 블러더 족비(4만 원), 3D 특수분장 족비(5만 원)로 구성돼 있다.

체경선 미술감독은 코로나로 축제를 즐기지 못한 분들에게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과 영화 세트처럼 연출된 공간에서 좀비도 데보고, 열차를 타고 탈출에 성공해 즐겁고 신선했던 할로윈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소지품은 보관함에 넣고 탑승할 것. 둘째, 부상 예방을 위해 탑승 전 스트레칭을 할 것. 셋째, 신장 130cm 이상~195cm 이하일 것.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한 놀이기구 체험이 되기를 바란다.

2년 만에 돌아왔다 호러메이즈

종양의 외관, 양장 다크 X의 비밀 갱도 안에 금씩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그 소문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도전해 보시길…

2020년 이후 리뉴얼돼 재개장한 호러메이즈의 설명 문구다. 호러메이즈는 공포체험형 놀이기구로, 블러드시티의 개장일과 동일한 9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장한다. 에버랜드 이용권 이외의 별도 티켓구매가 필요한 놀이기구로, 입장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전스마트 예약을 한 후 당일 현장 발권(호러메이즈 키오스크, 알파인 매표소)을 통해 발권이 가능하다. 반드시 예약한 시간에 놀이기구를 이용해야 하며 14세

미만, 노약자, 음주자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용 금액은 만 원이다.

노란 정원에서 호박과 함께 춤을

꽃으로 유명한 에버랜드에서 할로윈을 맞아 포시즌스 가든을 새로 단장했다. 포시즌스 가든은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메리골드(금잔화)가 끝없이 펼쳐진 '할로윈 애벌 가든', 알록달록한 가을 식물들과 귀여운 할로윈 오브제들로 꾸며진 '컬러풀 애벌 가든',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든 '함께 가든'이 있다. 포시즌스 가든에서는 여러 공연이 펼쳐진다. 베이글(에버랜드 캐릭터의 이름)과 할로윈 악동들이 만들어가는 신나는 '달콤살벌 Trick or Treat' 파티와 유령들이 터져 간 마법의 책을 찾아 떠나는 할로윈 스페셜 멀티미디어 쇼인 '고스트 맨션'도 포시즌스 가든에서 진행된다.

블러드시티를 탈출한 꼬미기자 '스푸키 199'도 포시즌스 가든에서 운영된다. 자료출처 : 에버랜드 홈페이지
최지혜 수습기자

할로윈을 맞아 음식들도 새 단장을 했다. 할로윈에만 만나볼 수 있는 머니와 해골로 가득한 할로윈 음식들은 기든테라스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기든테라스의 푹찹스테이크&라이스와 할로윈콤비네이션샐러드 위에는 귀여운 계단 모양의 저단이 올라가고, 기든테라스의 단호박스프&블랙번 위에는 해골이 인사하고 있다. 알프스쿠체와 기든테라스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요리조리 시리즈도 있다. 음식에 눈이 붙어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또한 알프스쿠체에서는 블러드에이드 시리즈도 있으며, 팝콘 매대에서는 할로윈 머니팝콘을 판매 중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방문 전 홈페이지 내 운행 안내 페이지의 운영하지 않는 놀이기구를 참고해 이쉬운 발걸음을 없기를 바란다.

자료출처 : 에버랜드 홈페이지
최지혜 수습기자



가을의 향기

김미림(관광경영학과·1)

여러분들은 계절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가? 계절이 변화할수록 느껴지는 서로 다른 향… 나는 그중 가을의 향을 가장 좋아한다. 오렌지 빛깔의 낙엽과 푸른 숲의 특유의 향. 이 계절의 향을 맞고 있노라면 그 향과 관련된 추억들이 새록 새록 기억난다.

나는 자리에서 수많은 가을을 지나왔지만, 올해 가을은 내게 더욱 특별하다. 그간, 계절의 변화를 잘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성인이 되고 자유를 얻으면, 처음으로 계절의 변화를 몸소 느낀다. 사실, 이 가을의 계절이 오기를 내심 기다리고 있었지도 모르겠다. 가을, 이 계절의 향을 맡기 위해 달려온 나의 여정을 진심을 다해 써보겠다.

2022년 살아있는 생생한 풀 내용을 맡을 수 있는 봄이 돌아왔다. 익숙한 친구들을 뒤로한 채 나는 대학교에 던져졌다. 새 학기, 새내기 이 단어 자체만으로 나는 완전히 경직됐다. 하지만 뿐에는 생명의 씨앗이 탄생하고 있었고, 친구들과는 우정의 씨앗이 탄생하고 있었다. 나는 봄에 정말 많은 것을 시도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 보고 싶었던 연기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도 맞춰 보고, 부자들의 세상이 궁금해 한 끼 식사에 12만 원짜리 오마카세에서 알바도 했었다. 한생생 학교에서 친구들만 만나 온 어린 나에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고역이었다. 그래서 봄에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니, 햇살의 넘새와 시원한 향이 느껴지는 여름이 다가왔다. 이 계절의 나는 참 위태로웠었다. 오마카세 알바에서 맨날 지적을 당하고 있어, 참 많이 울었다. 나랑 더 오래 일하고 싶고, 호흡을 더 잘 맞추고 싶어 하는 말인데, 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가을이 온 지금 나는, 새로운 사람을 봄과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말 한마디 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부모님께서는 스무 살이 되고 변화된 내 모습이 많이 놀라워한다고 한다. 이 가을이 오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기에 가능한 한 일이었다. 또 너무 감사하고 따뜻한 사람들에 있었기에 올 수 있었다.

사실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방향성과 꿈에 대해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도전들이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쳐더라도 모두, 새로운 빠이 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버텼으면 좋겠다.

가을은 과릇과릇했던 일들이 낙엽이 되고 떨어지는 과정이다. 누군가는 죽음의 계절이라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과정이 있기에 봄에 더 화려하고 과릇과릇한 꽃을 피울 수 있다. 지금 마음의 짐과 생각이 너무 많다면 나무처럼 마음의 짐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꿈을 이루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글을 쓸 수 있게, 좋은 기회를 준 자혜 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매일의 일상과 카메라 연습, 밀하기와 관련된 수많은 서적을 읽은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 이렇게 위태롭지만 많은 깨달을 주는 여름이 가고 지금의 가을이 왔다.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 알바가 뒷날 나에게 직원에게 감사하는 법과 고객 응대 하는 법, 나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 있는지 알려 주는, 많은 도움을 준 알바가 되었다.

제일을 것 같아 다닌 연기학원은 사실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아무 재미없이 학원을 다니고 있던 그날, 나는 운명처럼 한 대본을 받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게 바로 쇼호스트 대본이었다.

그래서 나는 3개월 동안 다닌 연기학원을 그만두고 바로 쇼호스트 학원을 떠났다. 그리고 쉬운 일은 하나도 없구나를 느꼈다. 연기학원에서 도망쳐 쇼호스트 학원에 왔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평소에 가진 취약점들이 카메라로부터 적나라하게 비쳐졌다. 정말 도망치고 싶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정도 저것도 안 된다고 언제까지 도망칠래? 맞다. 나는 무슨 일이든 도망치기 비빴던 것 같다. 이때 알았다. 쉽게 생각했던 모든 일은 저마다 나름의 고충과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구나를… 그래서 평소 내가 하는 말의 습관을 고치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원래 내가 말하기를

죽비소리

대학생을 마치며

장준호(전자공학과·4)

올해로 난 대학의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신입생이었다. 그저 하라는 것을 하고, 남들이 하는 것을 하면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냈다. 어느 날과 같이 방구석에서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고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조금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살면서 한 번밖에 오지 않을 20대의 소중한 대학 생활을 허투루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꼭 해 보자'라고 다짐을 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이 공모전이었다. 교내 공모전뿐만 아니라 교외 공모전에도 참가하게 됐다. 학교에서 만난 같은 전공을 가진 학우들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우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각자 가진 공모전 팀을 나누고 어려너무 텁텁의 전공 지식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팀을 꾸려 프로젝트 진행하고 함께 준비한 팀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등장 자체가 흔들림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고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인 거리 두기 제재가 강해졌고 점부지침에 따라 대면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학교 안에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활동을 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학교는 전면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남은 학교생활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 나는 학교 홈페이지, 대외활동 사이트를 뒤져가며 그간 하지 못했던 조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취업역량 재고를 위한 장학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바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했다.

나는 '교내실습준비실'에서 일하게 됐고 공강 시간을 활용해 근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학업, 과제, 대외활동들을 병행할 수 있었다. 또한, '교내 실습 준비실'에서 근로를 진행해서 전자공학에서 사용되는 소자, 부품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교수님들의 수업 준비를 돋는 업무를 통해서 수업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됐다. 방학에는 방학 집중 근로를 통해서 부산 시장, 청소년수련관에서의 업무를 통해 다양한 실무를 배울 수 있었고 사회를 먼저 경험할 수 있다는 면에서 큰 장점이 있었다.

여러 공모전과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내가 맛본 가치는 기쁨이었다. 머릿 속으로 구상한 것들이 하나씩 구현되고 이루어지는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면서 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제작해 온라인 상이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면 자부심과 희열이 커질 것 같았다. 나의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제공되는 제품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또 다른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업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하면서 아름바이트까지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던 중, '국가근로장학금'이라는 국가에서 주인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2명의 종은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여 내게 디자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라고 고백합니다. 꿈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등한 불만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의 불평등한 보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종'이라는 호칭입니다.

'종들' (마25 : 14)에서 '사람' (마25 : 15)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종은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에게 자유, 선택, 자유의 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질보다 소중한 무형의 요소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자유는 각자 자신의 판단으로 삶을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다른 선택을 가져왔을까?

바로 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3명의 종은 주인이 떠나기 전에 주인과 함께 생활했고, 주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종과 한 명의 종의

독회 칼럼

달란트 비유에서 '자유와 책임'



황정환 교수

윌리엄 헬레스는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해 싸운 영웅입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힙니다. 위대한 영웅 윌리엄 헬레스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영화에서는 '자유(Freedom)'를 외치며 헬레스는 저항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인류사를 봐도 자유를 위한 많은 희생과 혁명이 있었기에 현재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마25 : 14-30)에서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자유, 선택과 책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두 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주고 땅입니다.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평등한 나무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등한 불만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의 불평등한 보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종'이라는 호칭입니다.

'종들' (마25 : 14)에서 '사람' (마25 : 15)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종은 주인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에게 자유, 선택, 자유의 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질보다 소중한 무형의 요소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자유는 각자 자신의 판단으로 삶을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다른 선택을 가져왔을까?

바로 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3명의 종은 주인이 떠나기 전에 주인과 함께 생활했고, 주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종과 한 명의 종의

이달의 명언

상쾌한 가을이 되면, 생명은 모두 다시 태어난다.
—F. 스콧 피츠제럴드

모두가 나웃잎이 뚫들어 가는 것을 여유있게 앉아서 감상해야 한다.
—에스티비에스 로센스

나는 시월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참 좋다.
—L. M. 몽고메리

독회 칼럼

달란트 비유에서 '자유와 책임'



황정환 교수

윌리엄 헬레스는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위해 싸운 영웅입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힙니다. 위대한 영웅 윌리엄 헬레스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죽음을 맞았습니다.

영화에서는 '자유(Freedom)'를 외치며 헬레스는 저항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인류사를 봐도 자유를 위한 많은 희생과 혁명이 있었기에 현재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마25 : 14-30)에서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자유, 선택과 책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두 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주고 땅입니다.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평등한 나무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등한 불만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의 불평등한 보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종'이라는 호칭입니다.

'종들' (마25 : 14)에서 '사람' (마25 : 15)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종은 주인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에게 자유, 선택, 자유의 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질보다 소중한 무형의 요소들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자유는 각자 자신의 판단으로 삶을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다른 선택을 가져왔을까?

바로 주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3명의 종은 주인이 떠나기 전에 주인과 함께 생활했고, 주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종과 한 명의 종의

네컷만화

가을의 향기



사설

머릿속에 지워진 힘, 문해력

최근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린다'라는 공지문이 논란이 됐다.

20세기 후반, 증등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에게 이 표현은 공적인 문맥에서 세심한 예의를 갖춘, 정중하고 완곡한 관용적 표현이다.

반면, 다양한 미디어의 일상적 활용이 보편화한 1020세대는 '심심(甚深)' 한의 의미를 '깊고 간절한 마음의 표현' 대신 '지루하고 재미없다'로 오인했다는, 문해력이 낮은 세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해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문해력이 낮아지는 동시에, 사람들은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은 물론 대학생에게서까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절실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긴 문장은 물론이고 짧은 문장을 해석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학습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심각한 일이다.

대학에서도 격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긴 문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한다. 대학생 또한 자신들의 문해력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으로는 디지털과 영상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세상으로의 변화가 가장 많이 품하고 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대부분의 소통이 활자 메시지나 긴 글이 아닌 사진과 영상 또는 문장을 줄인 짧은 글로 대체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문해력은 학습의 기본으로 지목된다. 문장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학습 전반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그만막 문해력 향상은 학교교육의 가장 밑바탕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상과 이미지가 문자와 활자를 대체하는 사회로 변모함에도 문해력의 중요성은 낮아지지 않는다.

활자 위주 시대보다 더 많이 쓰여지는 정보 속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고 그것을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위해선 문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AI가 등장하고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인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이성적, 감성적 능력을 키우려면 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중요하다. 결국 문해력을 키워야 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매개하는 사회와 문화의 급격한 변동에서 기성세대 역시 적응해야 할 과제다.

<h2

■ 학생 인터뷰 – 2022 피란수도 부산시민 아카데미 콘테스트 특별상 구수정 감독

영상콘테스트 특별상 수상의 영광

순덕이 아버지의 악속



▶ 2022 피란수도 부산 시민 아카데미



▶ '순덕이 아버지의 악속' 특별상 수상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 많은 피난민들을 수용한 도시였던 부산은 어려운 생활 속 살아가려는 의지를 기록하고 있던 피란수도였다. 부산시는 2026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피란수도·부산'을 등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동안 대학민국 임시수도의 기능을 담당했던 부산의 가치를 재발견해 '피란수도·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일환으로 영상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의미 깊은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재학생을 인터뷰했다.

Q.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디자인 디렉터와 마케팅 컨설턴트 전문가 구수정입니다. 주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거나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고, 때때로 엉뚱하며 호기심이 많습니다.

Q. 미래커리어대학 실용콘텐츠창작학과에 진학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누구나 대학교에 가야 할 나이에 학교에 진학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뒀고, 한 브랜드의 마케터이자 디자이너로 또, 매거진 기자 등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 왔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전문성을 높여 줄 커리큘럼을 통해 기초부터 탄탄히 키우고 싶어 진학하게 됐습니다.

Q. 피란수도 부산유산 콘테스트에 참여하고자 했던 동기가 있을까요?

A. 학교와 동기인 혜인환님이 이거 해보면 어떨까? 하고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2021년에 피란수도·부산 아비구스트셨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부산에 구시가이나 오래된 건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찾아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러한 부분이 공통점으로 작용했고 감독과 배우로써 호흡을 맞추게 된 것 같아요.

Q. 본 콘테스트에 참여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은 영상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어요. 결국 영상 콘텐츠는 화면을 마주하는 관객과의 교감이 중요하니까요. 학교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두 번째 만들어 보는 영상이어서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래도 순위권에 꼽힐 것으로는 좋았어요. 우암동 소만마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카페에서 마신 아이스아메리카노가 인상적이었어요.

Q. 영상 콘테스트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일화가 있나요?

A. 전당포 씬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할머니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연기와 실제가 조화로워서 편집에서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한여름에 진행된 촬영이라서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우암동 소만마을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카페에서 마신 아이스아메리카노가 인상적이었어요.

Q. 특별상을 함께 수상한 학우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A. 시나리오가 중간에 변경됐지만 해당 내용을 잘 연기해 주시고 초보 감독의 디렉팅을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

로도 저의 영상 촬영에 참여 부탁드려요!

Q. 학교에서 배운 수업이 특별상 수상에 것에 도움된 부분이 있을까요?

A. 동서미래커리어대학에 입학했기에 배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지 망설였지만, 실용콘텐츠창작학과 학우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1학기 배운 김효정 교수님의 편집 수업과 박미정 교수님의 시나리오 작성과 영상문법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Q. 미래커리어대학 실용콘텐츠창작학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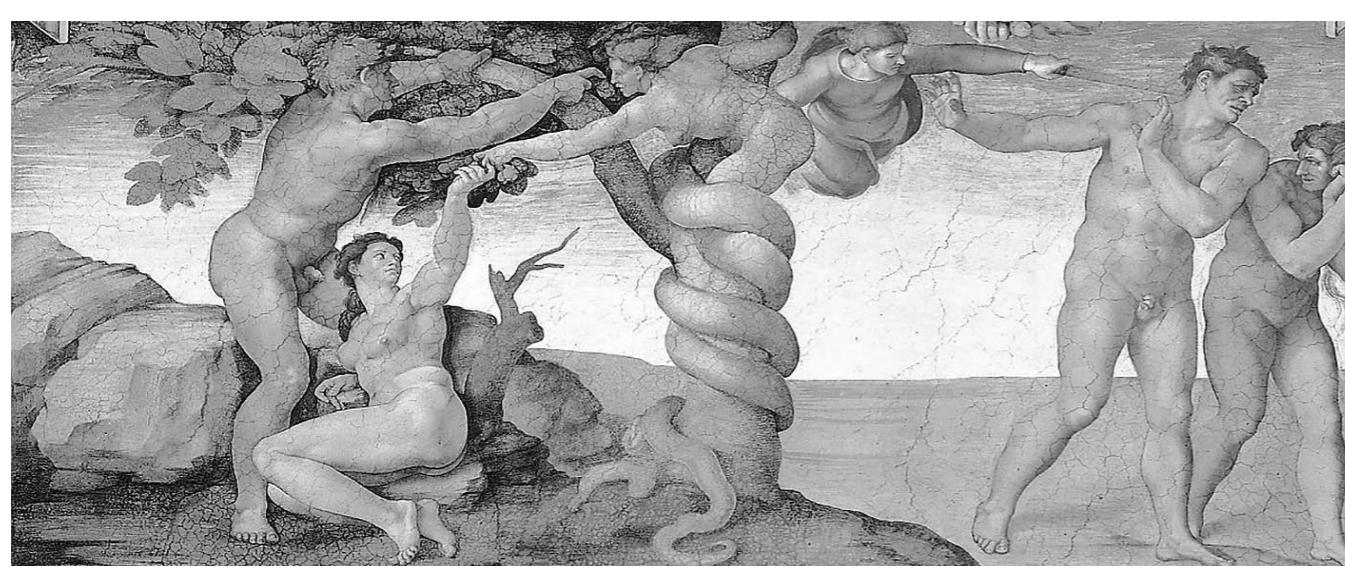
A. 중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만화의 슬랩dash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정대만은 결승전에서 상대팀에게 1점 차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몇 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루즈볼을 잡으려다가 몸을 날려 쓰러지면서 낙심하는 표정을 보여줍니다. '포기하게 되면 그 순간 시합은 종료예요'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커리어대학에서 함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도전을 계획해 이어나가고 싶은지 말씀해주세요!

A. 자유롭게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영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드렸을 때 부끄럽지 않은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웃음)

김선희 수습기자

성경 속 음식 이야기



▶ 미켈란젤로, *아담과 이브의 유혹과 추방*, 1508~1512, 이탈리아 로마 ▶ 사진출처 – 네이버포스트 '미켈란젤로의 눈으로 보는 창세기, 아담의 창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통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멋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통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창2:8-9)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통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2:16-17)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동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통산을 일구고 지킬 것을 명하신다. 그리고 통산의 모든 과일을 먹게 하지만 단 한 그루, 통산 가운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신다. 하지만 인간은 벤의 힘에 빠져 선악과를 먹게 된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벌을 내린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과일일까? 많이들 선악과를 사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선악과는 성경에 명시돼 있지 않다. 대신 여러 가설이 있다.

첫째, 무화과라는 설이 있다. 구약성경의 주 무대는 팔레스틴 지역이다. 따라서 팔레스틴에서 가장 흔한 과일인 무화과가 선악과라는 설이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이스라이나 성당에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에서 과일의 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 그림에 있는 나뭇잎의 형태가 선악과와 닮아서 선악과가 무화과라고 주장한다.

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는 선과 악, 부끄러움 등의 감정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그 옷의 재료가 된 나뭇잎이 무화과나 나뭇잎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따라서 선악과는 무화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포도나무라는 설이 있다. 포도는 포도주의 원료가 된다. 이에 포도주와 관한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을 느꼈다. (창3:7) 그리고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 뒤 벌거벗었다. (창4:21, 창2:15) 따라서 벌거벗음과 연관된 포도가 선악과를 상징한다는 이유이다. 또 포도주는 괴물(lignum scientiae boni et malii)로, 히브리어의 뜻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의 나무이다.

인간은 즐겁기도 하며(선) 죄를 저지르기도 한다(악). 따라서 포도가 선악과일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셋째, 사과라는 설이 있다. 'Adam's apple'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가?

'Adam's apple'은 율대뼈의 별칭으로, 물대 선악과를 먹던 아담이 하나님의 등장에 놀라 목에 선악과가 걸리게 되고, 목에 걸린 선악과가 아담의 율대뼈가 됐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율대뼈를 '아담의 사과(Adam's apple)'라 부르기도 한다는 이야기다.

또, 히브리 성경은 그리스어 번역을 거쳐 5세기 초 히에로니무스의 주도 아래 리틴어 번역을 시작했는데, 로마톨릭에서 정경으로 삼았던 불가타성경이다. 불가타성경에서 선악과가 열리는 나무는 '리눔 시엔티에' 보니 에 말리(lignum scientiae boni et malii)로, 히브리어의 뜻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의 나무이다.

하지만 선악과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에서 혼란이 발생한다. 히브리 성경에선 모든 종류의 열매와 즙까지 의미하는 페리(peri)라는 단어를 썼다. 사과를 비롯해 무화과, 쌀, 밀 등 모든 열매를 포괄하는 단어다. 히에로니무스는 이를 리틴어 말(ma-lum)로 번역했다. 주님의 피인 포도주의 재료가 되는 포도를 먹었기에 죄가 됐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먹은

서 malum은 악을 의미하고 그 형용사형인 malus는 나쁘다는 뜻이다. 그리고 malus는 사과나무다. 따라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악간의 언어유적이 활용돼 선악과가 사과가 됐다는 설이다.

또 사과는 북유럽신화와 켈트신화에서 신들에게 영원한 정을 안겨 주는 열매로 신성시켰다. 그런 이교도적 신앙을 암화하고자 사과를 금단의 열매로 번역했다는 가설이다.

아담과 이브는 뜻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걸친 것을 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3:7)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창3:21)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향한 사랑으로 자비를 보여 주신 것이다.

아직 선악과가 어떤 과일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출처 : 주간동아 – 성경의 선악과는 왜 사과가 됐을까
다음블로그 – 정준국
수습기자 최지혜

■ 학생 인터뷰 – 광고홍보학과 김규리 학생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 동서대학보

동서대 신문사 부국장 취임 인터뷰

그리고 이번 183호 인터뷰도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 죽비, 엄광산, 인터뷰를 하게 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질문을 받는 것도 신선헛해요.

Q. 부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까지 기자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점이나 목표 혹은 마음가짐이 있나요?

A. 수습기자로 활동할 때는 그냥 정기자 분들께 피해 주지 말자는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직 서툴고, 신문사 일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활동했어요. 기사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실수는 없게 노력했어요.

Q. 동서대학보는 현재 몇 명의 기자가 활동 중이며 추후 수습기자 등 인원을 더 모집할 계획은 없나요?

A. 현재 정기자 세 명과 수습기자 네 명, 총 일곱 명이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신문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인원은 아니지만, 더 많은 수습기자들이 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신문사에 지원하고자 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 해 주실 말씀이 있나요?

A. 매달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다가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어요? 힘들 점이 딱 하나 있다. 이런 우리 대학 신문사는 소속 기자들과 부국장, 국장 등 많은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는 그중 새로 임명된 부국장을 만나 봤다.

Q. 말씀하신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작성하신 기사가 있나요?

A. 제가 작성했던 기사는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직접 작성한 내용이나 보니 있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나 학생들의 수상 이력에 대해 알리는 것도 재미있지만, 쓰는 재미가 있는 건 기획 기사나 영화 리뷰, 책 속의 풍경, 사설이에요. 재미있는 주제의 기획 기사는 내용을 조사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들 덕분에 흥미롭고, 영화나 책 소개, 사설은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기사이다 보니 더욱 그려요. 객관적 사실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을 전파하는 쪽이 즐겁습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작업은 176호예요. 이 때 천선란 작가님의 <천 개의 파랑>에 대해 소개하고, 또 2021 부산국제영화제에 관한 기획 기사를 작성했거든요. 문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때 작업이 가장 즐거웠어요.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를 소개하는 건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을 소개하다니 굉장히 흥미로울 일 아닌가요? 힘들 점이 딱 하나 있다. 이런 우리 대학 신문사는 소속 기자들과 부국장, 국장 등 많은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는 그중 새로 임명된 부국장을 만나 봤다.

제일 재미있었던 작업은 176호예요.

이 때 천선란 작가님의 <천 개의 파랑>에 대해 소개하고, 또 2021 부산국제영화제에 관한 기획 기사를 작성했거든요. 문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때 작업이 가장 즐거웠어요.

이와 별개로 179호에서 유미옥 환경 미화 팀장님과의 인터뷰도 기억에 남아요. 보통 인터뷰는 작업이 힘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 작업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직접 만나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도 감사했고, 직접 손글씨로 답변을 작성해 주신 것도 인상 깊게 남아요. 다른 신문, 다른 역할이지만 같은 환경을 누리며 배움을 느낍니다. 대학생인 것처럼 착각하며 늙을 틈도 없이 항상 젊게 볼을 맞이하네요. 원래 시사·언론이나 글쓰기 활동에 관심이 많은 것도 계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Q. 우선 취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서대학보 부국장을 맡게 된 광고홍보학과 2학년 김규리입니다.

Q. 동서대학보 기자 활동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어떤 계기로 활동하게 됐나요?

A. 1학년 1학기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동아리 활동은 학창시절 대학 생활로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폭넓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동아리가 없었어요. 전북 도모도 좋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려면 와중 동서대학보 모집 공지를 보게 됐고, 고등학교에서 하던 활동의 연장선으로 느껴져 지원하게 됐어요. 그때는 시사·언론이나 글쓰기 활동에 관심이 많은 것도 계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Q.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국장으로서 목표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국장님, 그리고 기자들과 함께 좋은 신문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부국장 자리에 앉아 된 만큼 책임감 가지고 좋은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 열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2022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KOSAC)
 - 접수기간 : 2022. 10. 24 ~ 2022. 10. 31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 2022년 제5회 미시령 힐링가도 44초 영상제
 - 접수기간 : 2022. 10. 1 ~ 2022. 11. 13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기타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2022년도 한-뉴 FTA 농수산 훈련연수 참가자 모집
 - 접수기간 : ~ 2022. 10. 10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기타
 - 공모분야 : 논문/리포트

- 제18회 부산미래 과학자상 공모
 - 접수기간 : 2022. 10. 10 ~ 2022. 10. 21
 - 응모대상 : 대학생, 청소년, 기타
 - 공모분야 : 논문/리포트

- 제31회 대전디자인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10. 24 ~ 2022. 10. 28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2022 미래작가상 사진 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11. 01 ~ 2022. 11. 08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 제1회 2022 상상도 못한 통일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10. 03 ~ 2022. 11. 11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
 - 공모분야 : 영상/UCC/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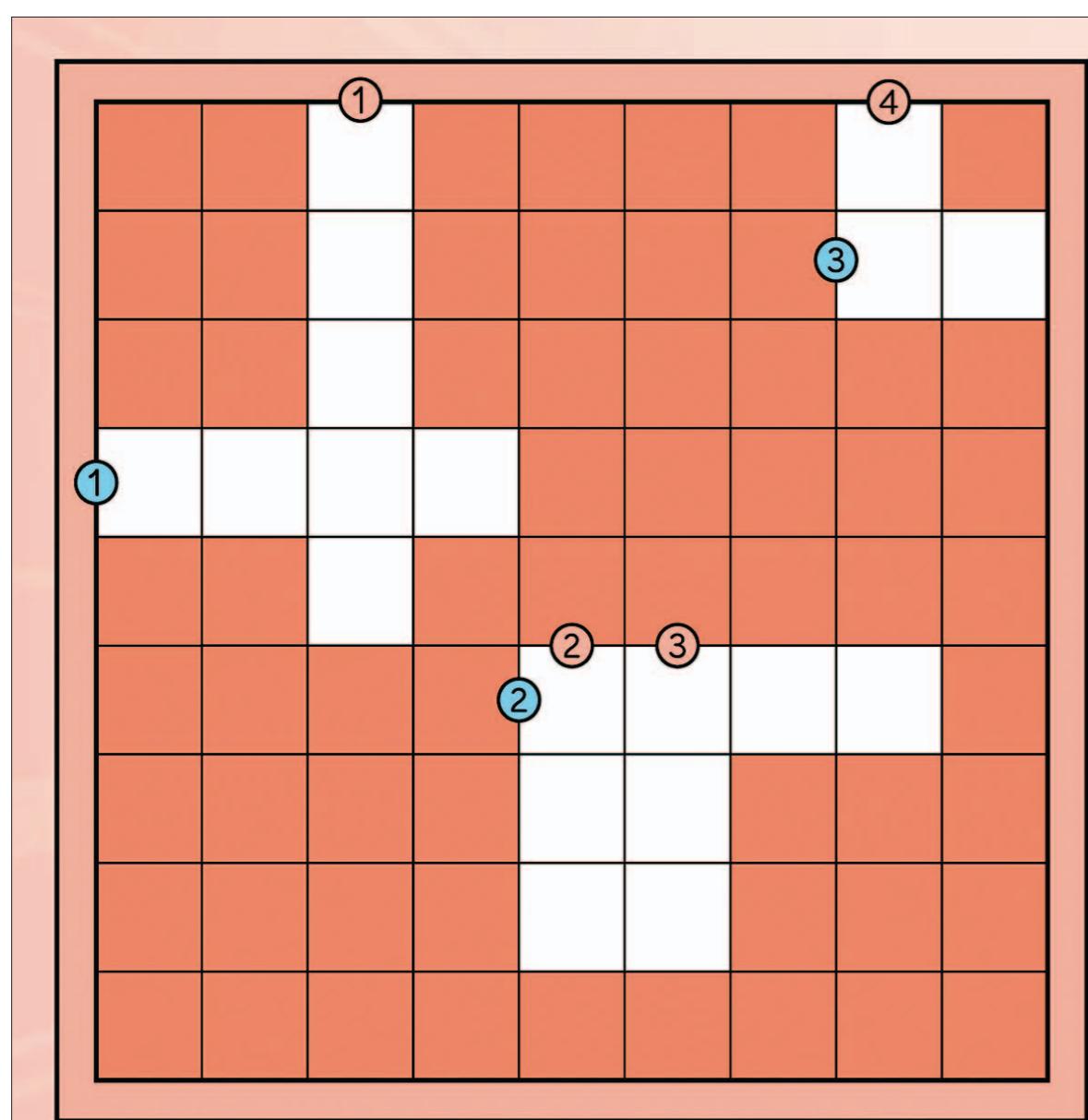
- 제46회 김생서예대전
 - 접수기간 : 2022. 10. 17 ~ 2022. 10. 20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예체능/미술/음악

- 2022년 제2회 자산문화재단 건축문화상
 - 접수기간 : 2022. 10. 04 ~ 2022. 10. 16
 - 응모대상 :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 건축/건설/인테리어

- 제8회 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
 - 접수기간 : ~ 2022. 10. 29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논문/리포트

- 농심, 안성탕면체를 활용한 타이포 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 ~ 2022. 10. 19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예체능/미술/음악

- 2022 외식경영스타 아이디어 공모전
 - 접수기간 : ~ 2022. 10. 20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광고/마케팅, 논문/리포트



- DSU NEWSPAPER - 맞춰봐요 낱말퍼즐

가로

- ① 미디어콘텐츠대학에 소속된 학과 중 하나로, 게임을 개발하고 배우는 학과
- ②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시설
- ③ ‘가을 저녁’이라는 뜻으로 가을에 보내는 명절

세로

- ① 우리 대학언론사 중 하나인, 대학 신문의 이름
- ② 문자, 혹은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 ③ 미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품
- ④ 가을의 시작을 뜻하는 한자어

참여방법

- ① 낱말퍼즐을 잘라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은 후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 ② 정답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아래의 번호로 보내주세요!
편집국장: 010-4915-8702

10월 28일까지 낱말퍼즐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10월 31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 학 과:
- * 학 년:
- * 이 름:
- * 연락처: